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강원도 춘천 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김현수¹ · 김학희¹ · 김대봉² · 국신희³ · 권우철⁴ · 김미혜⁵ · 김민정⁶ · 김수진⁶ · 김은경⁶ · 류대식¹
박성희⁶ · 손은주⁶ · 신희정¹ · 우옥희⁷ · 윤희수⁸ · 이 안¹ · 허미옥¹ · 차은숙⁹ · 한 현¹⁰
이원철¹¹ · 정수영⁸ · 오기근⁶

¹울산의대 영상의학과, ²분당제생병원 영상의학과, ³성균관대의대 영상의학과, ⁴원주의대 영상의학과,
⁵김미혜유클리닉, ⁶연세의대 영상의학과, ⁷고려의대 영상의학과, ⁸한림의대 영상의학과,
⁹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¹⁰강원의대 영상의학과, ¹¹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목적: 설문지를 통하여 강원도 춘천지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조기발견을 위한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지역주민을 위한 조기 유방암 무료검진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춘천 지역 여성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나이, 유방암 검진 (유방 자가검진 및 선별유방촬영술)의 시행여부와 유방암 검진의 동기와 장애,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의 연령은 27세 - 74세로 평균나이 34.6세 (표준편차, 10.5)이었다. 또한 2004년 전남 화순, 2005년 서울지역 및 2006년 부산지역에서의 조사와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유방자가진단은 37명 (56.1%)이 시행하였고 선별 유방촬영술은 37명 (56.1%)에서 받은 경험이 있었다.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동기 중 가장 많은 것은 정기 검진 (27명, 40.9%)으로 전남 화순 (43%)과 서울 (51%) 및 부산 (47%)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고 유방검진의 장애는 시간이 없어서 (27.6%)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방암 지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5문항 중 평균 1.92개를 맞추어, 화순 (1.66개)과 서울 (1.43개) 및 부산 (2.02개)과 비교 시 각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춘천이었으며 서울의 지식 정도가 가장 낮았다 ($p=0.000$, $p<0.05$).

결론: 본 조사는 전남 화순, 서울 및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된 설문지 조사이며, 이 결과는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해 유방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Survey

서 론

국내의 유방암은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부

터는 여성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1). 최근 각종 언론매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의료기관 등에서 유방암에 대한 교육과 조기발견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간암, 그리고 2004년에는 대장암을 추가하여 5대 암 검진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통신저자 : 김학희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138-736)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Tel. (02)3010-4390, Fax. (02) 476-0090
E-mail: hhkim@amc.seoul.kr

특히 유방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 정도와 행태를 아는 것은 유방암 선별 검진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이나 유방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행동에 대한 조사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대한유방검진학회는 2004년에 전라남도 화순 지역, 2005년에 서울지역 및 2006년 부산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수검 시행여부와 지식 정도를 조사한바 있다 (2, 3). 이번 조사는 같은 설문지로 강원도 춘천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4월 21일(토) 춘천 강원대학병원에서 제7차 대한유방검진학회가 개최되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유방암 홍보 및 교육, 무료유방암검진 행사를 시행하였다. 당일 행사장에서 강원지역 주민 참석자들은 유방암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유방모형으로 자가검진의 방법과 유방 병변의 특성 등을 교육 받았고 무료 유방강좌를 들었다. 이들 중 40세 이상이고 선별 유방촬영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무료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66명이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여성들의 나이는 22세에서 71세로 평균나이는 48.0세 (표준편차, 10.5)이었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나이, 유방암 검진 (유방 자가검진 및 선별 유방촬영술)의 시행여부와 유방암 검진의 동기와 장애,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지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방암 지식을 묻는 문항은 5개였으며 3문항 이상을 맞추었을 때를 보통이상으로 정의했다. 설문지 내용은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그리고 4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 촬영술을 해야 한다는 국립 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 권고안 (4)을 기준으로 하여 유방 자가진단과 유방촬영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또한 위 자료를 화순지역, 서울지역 및 부산지역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Fisher's exact test와 t-test, 그리고 일원배치 분산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유방 촬영술 수검의 장애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중응답 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춘천지역 여성 중 유방 자가진단은 응답자 66명 (무응답 0명) 중 37명 (56.1%)이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화순 (73명/131명, 55.7%), 서울 (438명/895명, 48.9%) 및 부산(70명/114명, 61.9%)과 비교하여 유방 자가진단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산지역이 가장 높았다 ($p=0.168$, $p > 0.05$).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은 응답자 중 37명(56.1%)이 받아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화순 (70명/128명, 54.7%), 서울 (489명/894명, 54.7%) 및 부산 (72/113명, 63.7%)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부산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p=0.339$, $p > 0.05$).

유방촬영을 하게 된 동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27명 (40.9%)이었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보고 시행한 경우가 9명 (13.6%), 유방에 증상이 있어서 5명(7.6%), 주위 사람의 권유가 3명 (4.5%), 언론 매체의 홍보가 2명 (3.0%), 기타가 2명 (3.0%)이었다 (Table 1). 40세 이상의 여성에서 최근 1-2년 내에 유방촬영술을 받은 경우는 32명으로 48.4%이었다.

유방촬영술의 장애를 묻는 질문에는 유방촬영술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29명 중 2명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27명이 27개의 답을 표기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8명, 27.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

Table 1.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동기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동기	응답자 수 (%)
정기적인 건강검진	27명 (40.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보고	9명 (13.6%)
유방에 몽우리가 만져지거나 다른 증상이 있어서	5명 (7.6%)
주위 사람 또는 가족이 권해서	3명 (4.5%)
기타	2명 (3.0%)
드라마나 뉴스, 잡지를 보고 걱정이 되어서	2명 (3.0%)
무응답	20명 (30.3%)

* 2명이 2개의 답을 선택함

Table 2.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장애

생애 선별 유방촬영술의 장애	응답 수 (%)
시간이 없어서	8명 (27.6%)
유방암으로 진단 될까 봐 두려워서	7명 (24.1%)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	4명 (13.8%)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4명 (13.8%)
기타	3명 (10.3%)
귀찮아서	1명 (3.4%)
무응답	2명 (6.9%)

로는 유방암으로 진단될까봐 두려워서 (7명, 24.1%),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4명, 13.8%), 어디 가서 검사해야 하는 줄 몰라서 (4명, 13.8%), 그리고 1명이 귀찮아서 (3.4%) 라고 답했다 (Table 2).

유방암의 지식에 관한 5문항은 유방자가진단의 시기, 유방암 검사를 받는 간격, 병원에서의 유방암 검진의 시작 나이, 유방암의 원인, 그리고 유방암의 위험인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모두 틀린 경우는 9명 (13.6%), 1개를 맞춘 경우는 13명 (19.7%), 2개를 맞춘 경우는 22명 (33.3%), 3개를 맞춘 경우는 17명 (25.8%), 4개를 맞춘 경우는 5명 (7.6%)이었고 5개 모두 맞춘 경우는 없었다. 평균 1.92개를 맞추었으며 화순 (1.66개), 서울 (1.43개) 및 부산 (2.02개)과 비교하였을 때, 지역간에 유의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 지역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p=0.000$, $p < 0.05$).

고 찰

유방암의 발생률은 1990년대(5)에는 여성암 중 3위였고 2000년(6)에는 여성암 중 15.1%로 2위, 2001년(1)에는 16.1%로 1위를 기록하였고 2002년(7)에도 16.8%로 1위를 이어갔다.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방과 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암 학회 (American Cancer Society)(8)에서는 건강한 여성에서 조기 유방암 진단을 위해 20 - 30대는 의사에 의한 유방진찰을 3년마다 받고, 40대부터는 유방촬영술을 해마다 할 것을 권고하며 20대부터 유방 자가진찰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자가검진, 35세 이상의 여성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40세 이상의 여성은 1 -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및 유방 촬영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국립암센터 및 한국유방암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방검진 수검율에 대한 조사는 많지 않으며 이원철 등(9)이 1997년 의정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생애 수검율이 21.6%였고 저자들이 조사한 2004년 화순지역(2)이 54.7%, 2005년 서울지역(3)이 54.7%, 그리고 2006년 부산지역(4)이 63.7% 이었다. 금번 춘천지역에서도 56.1%로 저자들의 네 지역 조사에서 모두 비교적 높은 수검율을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 선정용 유방검진학회 기간 동안에 홍보를 통하여 무료 검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유방암검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선택편의가 존재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화순과 서울, 부산 그리고 춘천지역의 수검율을 비교하였을 때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339$, $p > 0.05$).

유방촬영술의 동기로는 정기검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가 54.5%로 화순, 서울 및 부산지역의 결과와 비슷하였고, 유방검진의 장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2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방촬영술의 장애에 대한 질문에 29명중 2명이 응답하지 않아 6.9%의 결측치를 보였다.

유방암의 지식 정도는 보통 이하인 2개 이하를 맞춘 경우가 66.7%이었으며 화순, 서울, 그리고 부산의 80%대 보다 낮았고, 평균으로 비교 시 부산이 화순보다 평균 0.36개 ($p=0.039$) 그리고 서울보다 평균 0.58개 ($p<0.0005$)를 더 맞추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식 정도가 높았다. 부산지역은 춘천 지역보다 0.28개를 더 맞추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p < 0.05$). 이 결과는 부산지역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춘천지역이 화순 지역보다 지식의 정도가 높게 결과가 나온 것은 지역 간의 차이 일수도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식의 정도가 증가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모집단의 수가 작은 것이 바이어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 지역은 가장 낮은 지식의 정도를 보였으며, 이는 모집단의 수가 가장 커서 다양한 대상으로부터의 설문을 얻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adler (10)등은 유방암에 대한 지식부족이 낮은 유방자가검진율과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본 설문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산 지역의 여성들이 유방 자가검진율과 유방촬영 수검율이 높았고 유방암의 지식 정도도 높았다. 그러나 여전히 유방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첫째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상여성들이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선택편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자료수집방법이 설문지를 나누어 준 후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집단 설문지법과 면접원이 질문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설문지 방법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한꺼번에 많은 대상자가 몰리고 공간상의 문제로 무응답이 나오는 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참여대상자의 기본정보로서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지역사회 여건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 점을 궁극적으로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응답률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숙련된 많은 면접원이 설문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조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조사는 일반시민의 유방암에 대한 조기검진 행태와 지식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1.1-2001.12). 보건복지부 2003.2
2. 김대봉, 김학희,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전라남도 화순지역 주민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5;2:27-31
3. 김대봉, 김학희,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서울지역 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행동.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5;2:110-113
4. 양혜린, 오기근, 김미혜, 등.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부산지역 주민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도. 대한유방검진학회지 2006; 3:121-124
5. 제 1회 유방암 조기검진 지침 개발 심포지움. 주관:국립암센터, 한국유방암학회 2001
6. 한국인 암등록 조사자료 분석보고서 (1993.1-1993.12). 대한보건복지부 1995.3
7.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0.1-2000.12). 보건복지부 2002.3
8.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한국중앙암등록 사업 연례보고서 (2002.1-2002.12). 보건복지부 2003.12
9. American Cancer Society. ACS Guidelines for Early Breast Cancer Detection. Available at: <http://www.cancer.org> Accessed Apr 5, 2005
10. 이원철, 노운영, 김영복, 박용문, 맹광호. 제 25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일반연제 32: 의정부지역 암 조기검진 현황 및 관련 특성 분석.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초록집. 1999
11. Sadler GR, Ryujin LT, Ko CM, Nguyen E. Korean women: breast cancer knowledge, attitudes, and screening behaviors. BMC Public Health. 2001;1(1):7. Epub 2001 Aug 13

Evaluation of Women'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s for Breast Cancer Screening in Chuncheon Gangwon-do by Survey

Hyunsoo Kim, MD.¹, Hak Hee Kim, MD.¹, Dae Bong Kim, MD.², Shin Ho Kook, MD.³, Woocheol Kwon, MD.⁴, Mi Hye Kim, MD.⁵, Min Jeong Kim, MD.⁶, Soo Jin Kim, MD.⁶, Eun Kyung Kim, MD.⁶, Dae Sik Ryu, MD.¹, Seong Hee Park, MD.⁶, Eun Ju Son, MD.⁶, Hee Jung Shin, MD.¹, Ok Hee Woo, MD.⁷, Hoi Soo Yoon, MD.⁸, Ann Yi, MD.¹, Miock Huh¹, Eun Suk Cha, MD.⁹, Heon Han, MD.¹⁰, Won Chul Lee, MD.¹¹, Soo Young Chung, MD.⁸, Ki Keun Oh, MD.⁶

¹Department of Radi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²Daejin Medical Center, Bundang Jeseang hospital, ³Sungkyunkwan University,

⁴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⁵Kim Mi Hye Breast Clinic, ⁶Yonsei University, ⁷Korea University,

⁸Hallym University, ⁹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¹⁰Kangwon University,

¹¹Department of Epidemi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omen's knowledge and screening behaviors for breast cancer in Chuncheon by survey.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66 inhabitant women, who participated voluntarily in free screening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age of participant, questions for knowledge of breast cancer, attitude and behaviors related to breast cancer screening. The ages of participants ranged from 22 to 71 years (mean age: 48.0 years). We compared this study with previous studies in Hwasun-gun, Seoul and Pusan.

Results: Fifty six percent of participants had been performed breast self examination and fifty six percent of participants had been performed screening mammography. The most frequent cause of related breast cancer screening was regular check-ups (40.9%) and the most frequent barrier was inconvenience of take time (27.6%). In knowledge of breast cancer, mean value of correct answer was 1.92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than in previous surveys of Hwasun-gun(1.66) and Seoul(1.43) but significantly lower than in Pusan(2.02) ($p=0.000$, $p<0.05$).

Conclusion: These data suggest that acti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re essential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his study may be applied to plan and develop screening program.

Index words: Breast Cancer
Self examination
Mammography
Survey

Corresponding author: Hak Hee Kim, M.D.